

한국의 기부문화 20년 조망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전문위원



1부. 한국의 기부 현황

- 1. 총기부금액
- 2. 기부참여율
- 3. 자원봉사 참여율
- 4. 기부자 평균 기부금액
- 5. 기부동기

- 6. 기부하지 않는 이유
- 7. 기부처
- 8. 기부 방법
- 9. 성별 기부참여율과 기부금액
- 10. 연령별 기부참여율과 기부금액

- 11. 교육수준별 기부참여율과 기부금액
- 12. 소득수준별 기부참여율과 기부금액
- 13. 혼인상태별 기부참여율과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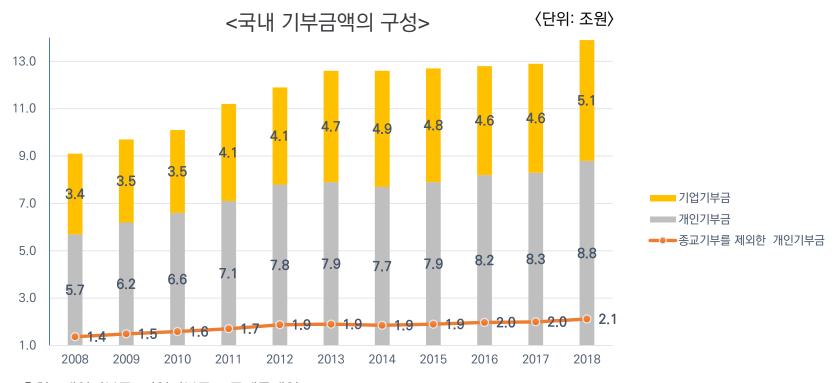
2부. 기부문화의 변천

- 1. 기부 규모와 구성
 - 1) 개인기부금과 종교기d부
 - 2) 모금기관의 모금액
- 2. 기부금 변동 요인
 - 1) 주요 모금기관의 정기기부금액
 - 2) 기부 방식 변화

- 3. 모금업계의 변화
 - 1) 기관 설립 규모
 - 2) 주요기관 설립
 - 3) 성공적 모금사례
- 4. 법제도 변화

1. 기부금 규모와 구성

- 1) 개인기부금과 종교기부 개인 기부금 종 종교기부 비중 75.9%
- 송헌재 외(2019)의 재정패널 기준으로 환산시, 개인기부금 중 종교기부금 비중 평균 75.9%
- 2018년 기준 국세청 통계연보 기준 개인기부금액은 8.8조원, 비종교기부금 비율 환산시 2.1조원수준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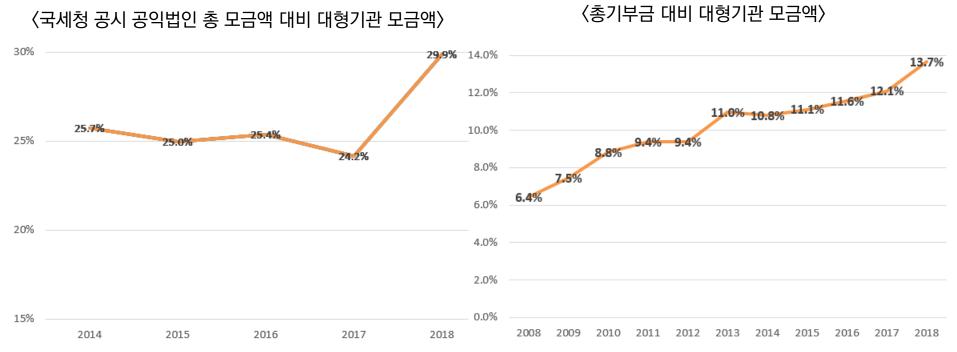


출처: 개인기부금, 기업기부금 – 국세통계연보

주: 종교기부를 제외한 개인기부금은 송헌재 외(2019) 참고로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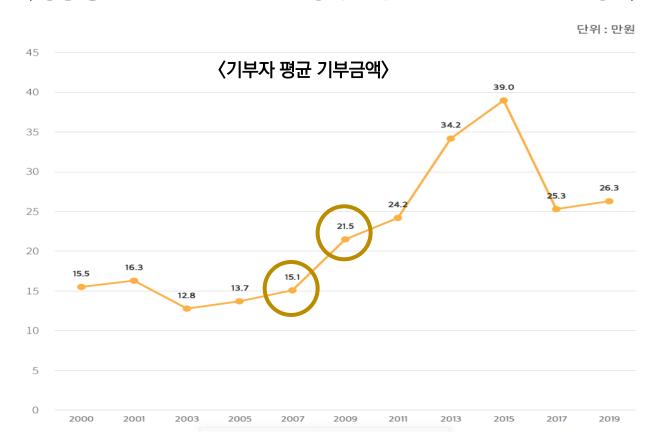
1. 기부금 규모와 구성

- 2) 모금기관의 모금액 기부금 모집 양극화
- 국세청 공시의무 공익법인 중 신고한 곳은 2018년 9,663개. 대형모금기관 22개의 모금액 비율은 2014년 25.7%, 2018년 29.9%에 달함.
- 국내 총 기부금액 대비 대형 모금기관 비중 또한 2008년 6.4%에서 2011년 9.4%, 2018년 13.7%로 지속 상승.



주. 대형모금기관: 2017년도 모금기준 상위 22개 모금기관

- 1) 주요 모금기관의 정기기부 금액 영향
- 결연기관 중심으로 월정기 기부 안착. 월드비전은 1992년 2만원 정기기부금을 2009년 3만원으로 인상.
- 기빙코리아 평균 기부금액은 2007년 15.1만원에서 2009년 21.5만원으로 급상승.
- 거리모금, 방송 통한 신규기부자 유입시 월정액 다각화. 3-40대 기부참여 안정화, 최근 1-2만원선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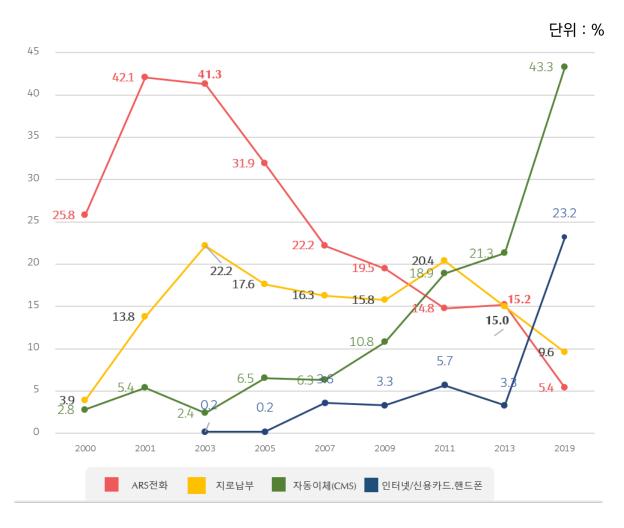


- 2) 기부 방식의 변화_지는 채널 또는 채널
- ① ARS기부
- 간편 기부방법으로 각광. 한국만의 독특한 기부방식.
- 1997년 사랑의 리퀘스트. 2000년기준 방송당 평균모금액 1억2천억원.
- 감정자극 정도에 따라 모금액차이, 수혜자 이미지 윤리문제, 10~20% 통신사 수수료 등.

② **지로**

- 지로 적십자회비는 1952년 말 당시 명예총장이었던 이승만대통령이 전쟁고아, 사상자 구호를 위해 시작.
- 강제성으로 인해 1995년 제도개선위원회 결정으로 2000년부터 자율모금방식 전환.
- 2016년 이후 지속 하락.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적십자에 넘겨진다는 반발로 2019년 고등학생들이 정보사용에 대한 위헌소송. 2023년부터 중단하겠다는 발표.

2) 기부 방식의 변화



출처: 기빙코리아 각년도

- 2) 기부 방식의 변화
- ③ 거리모금 자선냄비에서 거리모금으로
- 1928년 구세군 자선냄비가 시초. 2000~2005년 급증.
- 최근 냄비 개수와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 온라인 자선냄비와 현장에서 현금 외 결제방법 가능.
- 2005년 도움과 나눔이 엠네스티 모금 컨설팅을 하며 거리모금을 대행. 이후 INGO(국제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급증.
- 2016년 INGO의 거리모금 비판, 레드오션, 에이전시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



출처: 구세군 홈페이지

- 2) 기부 방식의 변화
- ④ 방송연계와 방송광고: 대형기관 중심의 성장견인
- <u>방송모금 :</u>



• **김테스** : 총 830억 7천여만원 모금, 4만5천여명 도움

ARS 방식을 도입한 최초의 방송이며 다른 모금방송의 기준이 됨. ARS 방식이 쇠퇴하면서 시청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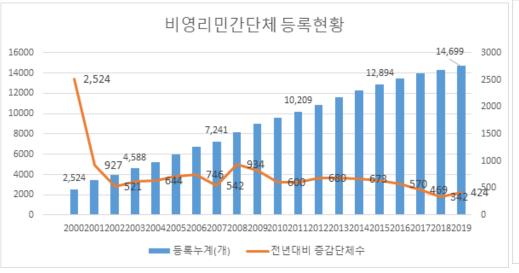
- <u>자체 광고 영상</u>: 대형기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플랜,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뿐 아니라 INGO들도 광고.
- <u>방송연계</u>: 아름다운가게 등이 홈쇼핑과 연계 공익상품 판매. TVN 리틀빅히어로 비영리/활동가 사례노출통해 모금. '세상에 이런일이', 고발프로그램 중 사례자노출 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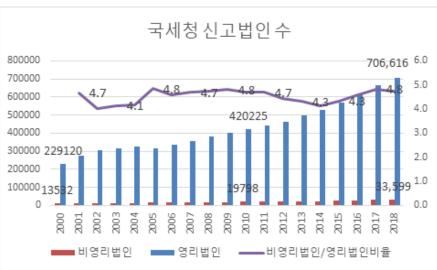
- 2) 기부 방식의 변화
- ⑤ 매체환경의 변화(2015~)
- 공중파, 일간지 중심에서 온라인 다채널 중심으로 환경변화
- SNS 채널 변화에 따른 컨텐츠(글-〉영상-〉짧은영상)와 노출 플랫폼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 내부 역량 강화 및 외주사 연계 필요성 높아짐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TV광고 등 하락세이던 채널이 상승세 보임



1) 기관 설립 규모

- 비영리민간단체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0년대 접어들면서 증가세가 다소 주춤. 최근 2017년 이후 한층 줄어듬.
- 국세청 신고를 기준으로 2018년 비영리법인은 33,599개. 영리법인 대비 비율 4.7% 유지하다 2014년 다소 낮아졌지만 다시 회복.





2) 대형 기업재단 설립_지출액상위

설립년도	재단명	2018 모금액(억원)	2018 지출액(억원)
2002	삼성꿈장학재단	11	356
2003	KT&G 복지재단	0.2	123
2004	농협재단	500	112
2005	CJ 나눔재단	142	156
2005	신한 장학재단	-	22
2006	GS칼텍스 재단	40	192
2007	행복나눔재단	273	283
2007	현대차정몽구재단	-	466
2007	하이트 문화재단	-	800
2009	세화예술문화재단(태광그룹)	-	19
2010	아산정책연구원	104	112
2011	아산나눔재단	1	83
2013	포스코 1% 나눔재단	74	84
2013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500	369
2016	서경배과학재단	800	40
2018	(재)사회적가치연구원	143	125

2) 대형 기업재단 설립_기부금상위

וב נג			
설립 연도	분야	법인명	2018년 기준 총기부금품(원)
1982	사회복지	삼성생명공익재단	52,989,414,627
1990	사회복지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1,900,720,000
1996	기타	신한희망재단	17,980,000,000
1996	사회복지	이랜드복지재단	2,458,282,923
1997	기타	인엘지상록재단	4,000,000,000
2000	사회복지	미래에셋박현주재단	6,250,814,843
2003	사회복지	씨제이나눔재단	14,210,497,394
2003	사회복지	강원랜드복지재단	8,511,109,140
2005	사회복지	(재)삼성복지재단	23,036,390,010
2005	사회복지	하나금융나눔재단	3,774,960,338
2005	사회복지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3,066,427,466
2006	사회복지	하나금융공익재단	7,505,692,339
2006	사회복지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 단	3,170,524,727
2006	사회복지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2,009,966,459
2006	사회복지	한국지엠한마음재단	1,929,992,380
2007	사회복지	케이디비나눔재단(KD B)	3,446,852,539

설립 연도	분야	법인명	2018년 기준 총기부금품(원)
2009	기타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7,857,909,364
2009	기타	해피빈	4,570,944,557
2010	기타	아산정책연구원	10,400,000,000
2011	기타	케이비금융공익재단	15,999,000,000
2011	기타	비엠더블류코리아미래재단	2,339,166,308
2011	사회복지	디지비사회공헌재단(DGB)	2,115,200,526
2012	사회복지	강원랜드희망재단	3,000,000,000
2013	사회복지	라이나전성기재단	7,673,562,712
2014	사회복지	인 렛츠런재단	5,198,628,074
2015	사회복지	신협사회공헌재단	3,441,144,218
2016	기타	서경배과학재단	8,366,400,000
2016	사회복지	한국야쿠르트사회복지재단	3,800,665,000
2017	기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17,197,599,983
2018	기타	(재)사회적가치연구원	14,330,000,000
2018	기타	넥슨재단	4,694,250,000
			267,226,117,945

3) 온라인 모금 플랫폼

- 해피빈: 2005년 7월 아름다운재단과 네이버가 함께 시작한 국내 최초의 '온라인 기부 포털사이트'. 2009년 네이버가 자본금 30억원 출연하여 재단법인 '해피빈 ' 독립. 2019년 기준 920,730 참여하여 16,242,820,000원 모금, 약 1,000여개 모금함 운영.
- 카카오 같이가치: 2007년 Daum 아고라 내 '희망모금 '으로 시작. 2009년 모금서비스 '하이픈'을 거쳐 2011년 '희망해' 서비스로 발전. 2015년 누적기부금 100억원 달성. 2016년 '같이가치 with kakao'로 서비스 개편. 2019년 기준 6,084,449건 참여, 5,176,497,949원 모금
- 크라우드펀딩: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개념. ①후원기부형, ②대출형, ③증권형의 세 가지 유형(또는 ①보상형, ②기부형, ③대출형, ④증권형) 2011년 후원, 기부, 대출형을 시작으로 정착, 2016년 증권형 도입. 2016년 NPO지원센터 블로그에 해피빈, 같이가치를 제외하고도 13개의 기부형 플랫폼이 소개되어 있는데, 2020년 현재 운영되는 곳은 4개뿐임.

4) 국제NGO의 한국 진출

법인명	2018년 기부금품	설립연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57,471,109,000	1983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156,269,422,323	1991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34,779,900,656	1993
(사)해비타트	11,100,596,877	1995
재단법인플랜한국위원회	13,796,961,000	1996
한국 컴패션	70,341,277,000	2003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3,649,116,571	2005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사무소	54,999,975,967	2006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13,306,955,649	2012
재단법인 그린피스	8,859,933,577	2013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10,326,849,549	2014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WWF)	6,447,691,002	2014
재단법인 컨선월드와이드한국	5,546,060,805	2015

6) 성공적 모금 사례

1% 나눔: 소액기부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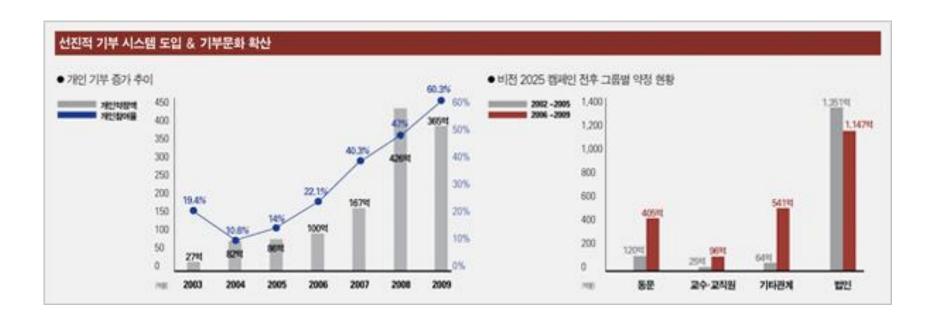
6) 성공적 모금 사례

생애주기 기부 : 돌기부, 결혼기부 등



6) 성공적 모금 사례

서울대학교 SNU 챌린지 캠페인(2007~2010) 3천억원 모금목표 -> 2008년 10월 3천 5백억원으로 모금목표 초과달성 국내 대학 최대 모금조직 구성(24명) 및 연 1천억원 수준 모금 추진



6) 성공적 모금 사례

아이스버킷 챌린지(2014년, 한국 2018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b_kdke345NQ)

6) 성공적 모금 사례

기부 굿즈, 리브스트롱 팔찌에서 마리몬드까지



마리몬드는

인권을 위해 행동하고 폭력에 반대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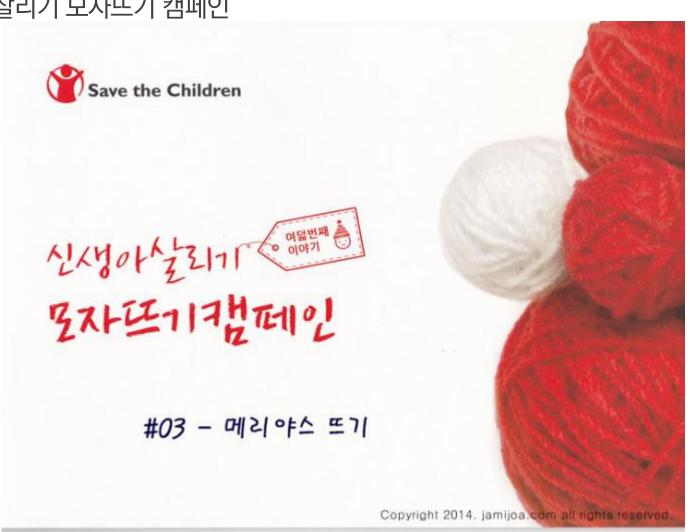
6) 성공적 모금 사례

한국형 고액기부클럽 _ 아너소사이어티



7) 성공적 모금 사례

참여형 –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4. 법제도 변화

2000년-2010년

기부금 세제혜택 강화: 개인기부금 인정한도 5%->10%->15%->20%
공익재단 주식보유한도 완화(5%->성실공익법인 10%)

공익법인 간 재출연 허용

식품기부 기부금 인정 / 공익신탁 지정기부금 인정

- 기부금 단체 관리 합리화 : 지정/특례/법정기부금 정의 기부금민간단체 사후관리 강화
- 공익법인 관리 합리화 : 공익법인 내부거리 사후관리 강화 공익법인 결산공시 의무화 /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4. 법제도 변화

2011년-2020년

- 기부금 세제혜택 축소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 지정기부금 기준 강화: 첫 지정 후 3년 내 모니터링 및 취소요건 강화
- 공익법인 관리 강화: 공익법인 공시 의무 강화 (자산10억/수입5억->자산5억/수입3억)

외부회계감사 의무 강화(자산100억원 ->자산 50억/기부금20억)

과다인건비 제한(8천만원 한도)

성실공익법인 의무지출규정 강화(자산 5억원/수입3억원)

공익법인 관리 합리화: 공익법인 회계기준 발표

이슈

<u>비영리단체/법인 등록 관리 일원화 : 국세청 vs 공익위원회</u>

5. 20년간의 기부환경 변화

2000년 기부활성화를 위한 개인기부 세제혜택 강화

민간 모금기관 설립, 정부주도의 '준조세형 기부'에 대한 비판 높아짐

2000-2006 총 기부금 급성장 : 2.5조->10조

개인기부 급성장, 방송, ARS, 공중파 캠페인 등 전통채널

2006-2012 총 기부금 성장율 둔화 : 10조->13조

정기기부 기반 개인기부 성장

대학모금 활성화

2012-2020 총 기부금 현상유지

기부금 세제혜택 축소, 모금채널환경 변화

해외단체 유입, 모금대행업체 중심의 마케팅 강화

모금 양극화 현상 심화, 고액기부/유산기부 관심 높아짐

26th Giving Korea